

글로벌화 · 디지털화 물결 높아진 도쿄국제도서전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14회째를 맞은 '2007년 도쿄국제도서전'이 열렸다. 입장권으로 확인된 관람객 수는 지난해보다 1천 명 정도 증가한 5만 5,943명. 전시장 구성이 ㄷ자 모양으로 걸보기에는 예전보다 축소된 듯 했으나 부스 참가사 수는 30개국 770개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글_백원근

출판시장에서 도서정가제가 강고하게 지켜지는 일본이지만, 도서전에서만큼은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는 20~30% 할인 판매가 정착된 모습이었다. 입장객들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 가운데, 그간 향상 과제로 지적되던 해외 참가사 수도 전년보다 약 20개사 늘어난 190개사가 부스를 차려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선진 출판국과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부스까지 선보였다. 특히 아동서 분야의 전시 참가가 늘어 해외 출판사간 저작권 거래가 활발했다는 후문이다. 신상품으로 소개된 '향기나는 그림책'은 그 효과가 1년간 지속된다고 하여, 관람객들이 향기를 맡느라 분주한 이색 부스도 있었다.

뛰어난 기획을 구상하는 4가지 비결

출판단체의 위탁을 받아 행사를 주최하는 리드(Reed Exhibitions Japan)는 국제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저작권 거래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저작권 정보 및 전시장에서의 상담 약속을 웹상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상당수 출판사가 이 시스템을 효과적

으로 활용해 저작권 상담과 계약 체결에 도움을 받았다.

이번 도쿄도서전에서는 여러 형태의 강연회와 어울리, 와인을 마시며 화제의 인물과 함께 하는 토크쇼, 출판 종사자 대상의 16개 유료 세미나도 개최됐다. 첫날 기조강연에서는 저널리스트이자 평론가인 다하라 소이치로가 <시대를 읽는다 - 출판업계가 가야 할 길은>을 주제로, 영상매체가 주도하는 시대에 출판만이 가진 특징을 살려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을 강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전국에서 출판·서점인이 모이는 <2007년 '책의 학교' 출판산업 심포지엄 in 도쿄>는 7일 하루 동안 전체 세션과 4개 분과 세션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파월 북스'를 운영하는 마이클 파월 사장이 중소서점의 생존전략을 강연해 발돋움할 곳이 없을 만큼 열띤 호응을 받았다.

업계 종사자 대상 전문 세미나 중에서는 단행본 베스트셀러 목록이 많기로 유명한 겐토샤(www.gentosha.co.jp) 전무(石原正康)의 <편집자의 일>이라는 발표가 이목을 끌었다. 발표자는 "메이저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가치밖에 가



1 도쿄국제도서전 개막식
2 출판사 부스마다 붙은 할인 표시

1 2008 IPA 서울총회 홍보 포스터가 붙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부스
2 구글재팬의 본문검색 서비스 홍보

지지 못한 것을 향해,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이 편집자의 일"이라며, 출판기획에 있어서 "가슴이 후련해지고 눈에 확 뜨일 만한 것이 편집의 출발점에 없으면 팔리는 책을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책을 만드는 일은 즐겁지만 실제로 만들고 나면 팔릴지 어떨지 우울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직업 가이드북 《13세의 헬로 워크》가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 책의 홍보를 위해 경찰서나 학부모 모임을 쫓아다녔던 경험도 털어놨다. 겐토샤는 문예물이 중심 분야이지만 기획물도 적지 않다. 발표자는 뛰어난 기획을 구상하는 비결로 4개의 사자성어, 즉 사업번창, 가내안전, 대원성취, 무병장수에 실마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글의 범상치 않은 일본 행보

또 이번 도서전에서는 일본전자출판협회(JEPA)가 제정한 '전자출판대상'의 첫 번째 수상식이 거행되었다. (<http://bizpal.jp/jepa/award/>) 전자출판물의 육성과 홍보를 위해 제정된 대상은 게임 소프트웨어부터 인터넷 서비스까지 넓은 의미의 전자출판물을 망라하여 수상작을 결정하는데, 9개 부문상 수상작 중에서 대상을 뽑는 방식이다. 대상의 영예는 차별화된 전문 콘텐츠 부문상(유니크 콘텐츠상)을 수상한 <간호의학 전자사전>(醫學書院)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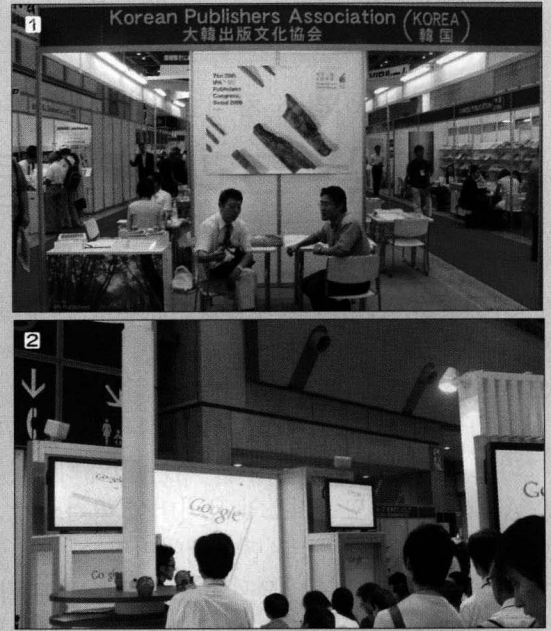
그 외에도 디지털 인프라상은 후지산매거진서비스의 디지털잡지, 서치(검색) 테크놀로지상은 아마존재팬의 본문검색 서비스가 차지했다. 아마존재팬 수상자는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본문검색 서비스에 참여한 일본 출판사가 600개사, 서비스 가능한 도서도 이미 57

만 종을 넘어섰다고 공개했다. 기타 수작으로는 익사이트 콘텐츠상에 산세이도의 교과서 오디오북, 오리지널 서비스상에 기노쿠니야서점의 <서평공간>, 벤처 마인드상에 고토노하출판의 오디오북, 베스트 아이디어상에 유희가쿠의 <중요 판례 검색 서비스 Vpass>, 어드밴스 디바이스상에는 한국에서도 빅 히트 상품이 된 <닌텐도 DS>, 스테디셀러상에는 이와나미의 국어사전 <코지엔 CD-ROM>이 뽑혔다. 다채로운 수상작들의 면면을 보노라면, 출판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상품화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그들의 노력이 부각된다.

한편 구글재팬은 7월 5일 본문검색(북 서치)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시를 공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전시장에서도 그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세계적으로 70개국, 10개 언어, 1만 개 출판사, 100만 종 이상을 커버하는 구글의 행보는 일본에서도 범상치 않다. 특히 콘텐츠의 공개 범위를 출판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전문 다운로드 가능 방식, 부분 공개 및 인쇄·복제 불가 방식, 발췌 표시 방식, 서지정보 한정 제공 방식), 네티즌의 서비스 이용량에 비해 출판사가 해당 페이지 연동 광고 수입을 전액 가져가며, 검색 서비스를 도서 판매 중대와 직결시키기 위한 출판사 및 서점 사이트와의 링크 서비스, 검색 이용자 정보의 출판사 제공, 맞춤형 구매 편의를 위해 '구글 맵'과 연동시킨 서점 표시 기능 등에 대해서 일본 출판계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실속과 비전을 행기려는 열정 넘치는 도쿄도서전

이번 도쿄도서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가관을 만들어 참가한 것을 비롯 십여 개 출



판사, 인쇄사, 책갈피 제작사 등이 부스를 꾸몄다. 개막식에서는 출철 최태경 부회장 등이 테이프 커팅에 참석했으며, 백제 시대의 목간(木簡)을 활용한 2008 IPA(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홍보 포스터가 협회 부스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또 한국출판인회의 산악회 소속 출판인 약 40명을 비롯 300명 이상의 한국 출판 관계자들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로는, 도쿄도서전은 이제 상당수 우리 출판인들이 입을 모아 '볼 것 없다, 서울도서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일축할 만한 도서전은 아니다. 일본 열도의 출판·편집·인쇄·전자출판·서점·외서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즈니스의 장, 각종 뉴미디어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가 선보이는 전시, 세계의 주요 도서전을 운영하는 전문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 참가사 유치 노력과 세련된 전시회 운영, 온·오프라인 출판과 서점 관련 수많은 비즈니스 세미나 등에서 실속과 비전을 챙기려는 열정이 끊어 넘쳤다. 새삼 서울도서전의 자화상이 떠올랐다. **■**

백원근 님은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각종 매체에 출판정책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